

# 문학출판과 한류

## - 일본에서의 한국현대소설 번역약사 (1) -

야나가와 요스케\* · 이형진\*\*

### 〈차 례〉

1. 일본에서의 '한국문학 붐'
2. 해방 이후 일본의 한국문학 수용사 개관
3. 한류 이후의 문학 출판
4. 『82년생 김지영』, 일본의 독자를 만나다

### 【국문초록】

본고는 해방 이후 2010년대 중반까지를 중심으로 일본의 한국현대소설의 수용 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문학작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본에 소개되어 왔으나, 특히 지난 10년간은 한국의 다양한 문학 작품들이 일본에서도 거의 동시적으로 간행되는 등, '한국문학 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례적이라 할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일 양국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깊이 있는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왜 지금 한국문학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일본에서의 한국문학번역사를 통시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의 2장에서는 해방 이후 일본에서의 한국문학수용이 초기에는 재일조선인과 한국의 문학자 주도로 이루어지다가 점차 일본인 문학연구자와 문학자가 유입되는 시기를 거치며 전 문화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번역자로서 중요한 활동을 한 1세대 일본인 연구자, 재일조선인 안우식과 소설가 나카가미 켄지, 그리고 자주강좌 참여자들이 남긴 업적에 주목하였다. 3장에서는 1990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일어난 한류와 한국문학 붐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4장에서는 이러한 한류를 배경으로 비로소 한국문학이 일본의 해외문학 시장에 정착될 수 있었음을,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한류가 한국문학 출판에 끼친 가장 큰 영향

\* 도쿄외국어대학 시간강사

\*\* 이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강의교수

이었음을 현재의 한류 붐에 비추어 논의한다.

[주제어] 일본에서의 한국문학, 번역, 한류, 한국문학 붐, 재일조선인, 자주강좌

## 1. 일본에서의 ‘한국문학 붐’

본고는 해방 이후 2010년대 중반까지를 중심으로 일본의 한국 현대소설 수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sup>1)</sup>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한국문학 작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본에 소개되어 왔다. 특히 최근 10년간 일본의 출판 시장에서는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다양한 작품들이 거의 동시대적으로 출간되는 등, ‘한국문학 붐’이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매우 갑작스러우면서도 상당한 폭발력을 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문학번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문학은 오랜 기간, 일본의 독자들에게 가장 외면 받아온 외국문학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여러 매체들이 이러한 ‘한국문학 붐’에 대해 앞다투어 보도하고, 문학계 및 출판계에서도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측에서는 일본에서 불고 있는 한국문학 붐이 한일 양국의 번역 출판물 시장에 있어서의 오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이자, 한국문학이 세계에서 인정받게 되었다는 징표로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sup>2)</sup>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출판시장에서의 성공을 최우선의 척도로 여길 수밖에 없는 상업주의적인 태도나 경제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이러한 성공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전략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논의의 편향성과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 측에서는 개별 작품

1) 본고의 초고는 2022년 8월 13일 한국근대문화회 제46회 학술대회에서 “일본에서의 한국현대소설 번역 역사”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표되었다. 이 초고에서 제기된 문제의식 중 ‘문학출판과 한류’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을 발전시켜 본고를 작성하였으며, 초고에서 다룬 1970년대의 김지하 붐과 2010년대 후반,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의 인기 사이의 ‘차이와 반복’에 대해 분석한 내용은 후속 논문에서 더 면밀하게 다루고자 한다.

2) 박선희, 『영미권 넘어 日서도 흐름 탄 K문학… 번역가 키우면 지구촌 대세』, 『동아일보』, 2020.10.30.

들의 반향에 대한 현상 분석에 머물고 있는 측면이 많아, '왜 지금 한국문학 붐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의 한국문학번역사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에서의 한국문학 붐은 한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대중문화 영역에서의 한류의 인기가 문학출판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영상 콘텐츠와 음악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인기가 문학 분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sup>3)</sup> 그러던 것이 2018년을 전후로 하여 일본에서 출간되고 있는 한국 문학작품의 수가 과거에 그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sup>4)</sup>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류와 문학출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정도의 설명을 넘어서, 어떻게 문학출판의 영역에 이토록 폭발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일본에서 한국문학의 수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통시적으로 살피는 것을 통해, 최근의 한국문학 붐이 지니는 의미를 한류와의 연관성 속에서 새롭게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한국문학 수용에 관한 연구는 한일 양쪽에서 이루어져 왔고, 내용상 (1) 번역작품의 목록 및 해제 작성과 (2) 수용사를 검토한 논문으로 대별할 수 있다. 번역작품의 목록화와 관련하여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자인 가지이 노보루(梶井陟)는 근대 이후 1970년대까지 출간된 단행본과 정기간행물에 실린 한국문학 작품을 정리하였고,<sup>5)</sup> 와타나베 나오키(渡辺直紀)는 간략한 자료 해제를 달아 연구서와 관련 서적을 포함한 작품목록을 작성하였다.<sup>6)</sup>

3) 吉川風, 『韓国文学』, 日本文藝家協会編, 『文藝年鑑』, 新潮社, 2013, 112면.

4) 吉川風, 『韓国文学』, 日本文藝家協会編, 『文藝年鑑』, 新潮社, 2019, 98면.

5) 梶井陟, 『日本における朝鮮近・現代小説(戯曲を含む)の作家別翻訳作品年譜』, 『富山大学人文学部紀要』 8, 富山大学, 1983.

6) 渡辺直紀, 『韓国・朝鮮文学研究のための文献解題』, 野間秀樹編, 『韓国語教育論講座』 4, ころしお出版, 2008. 해방 전 일본에 소개된 한국작품에 대해서는 大村益夫/布袋敏博編, 『朝鮮文学関係日本語文献目録-1882.4-1945.8』, 大村研究室, 1997.

한국에서는 주로 일본어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일본문학 연구자들이 주축이 되어 일본어로 번역된 한국문학 작품 목록 정리에 힘을 쏟았다. 일본문학 연구자 윤석임은 1896년<sup>7)</sup>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의 목록을 전반적으로 정리하였으며,<sup>8)</sup> 역시 일본문학 연구자인 이한정은 해방 이후 2010년대 중반까지 일본에서 출간된 단행본들을 시기와 작가, 번역가별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sup>9)</sup> 와타나베, 윤석임, 이한정 등의 연구는 단행본 위주로 정리되었으나, 분석 대상을 정기간행물까지 확대시키면 보다 많은 작품이 소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의 한국문학 수용 양상은 1세대 연구자인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와 사에구사 도시키쓰(三枝壽勝)의 논의를 통하여 역사화되었다. 오무라는 해방 이후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와 수용 양상을 선구적으로 정리한 반면,<sup>10)</sup> 사에구사는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수용사와 번역자의 시대적 변화, 한일 번역론 등 다각적인 접근을 보여주었다.<sup>11)</sup> 두 연구가 거시적 관점에서

- 
- 7) 윤석임은 안우식이 『일본에서 한국문학 번역상의 몇 가지 문제』(2003)에서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요사노 히로시(与謝野寛)가 『東西南北』이란 제목의 책에 한국의 시조 10편을 번역, 소개한 것을 근대 시기 일본에서의 한국문학 번역의 시초로 본다. 윤석임은 이 책이 “1886년 [...] 메이지 서원(明治書院)에서 간행”되었다고 쓰면서, 1886년을 기점으로 삼고 있으나, 해당 책은 메이지 29년 7월, 즉 1896년에 간행된 것으로, 1886년은 오기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를 바로잡아 1896년으로 표기하였다. 이 시들은 「한요십수(韓謠十首)」라는 표제 하에 이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196~204면에 실려 있다. 윤석임, 『일본어로 번역, 소개된 한국문학의 번역현황조사 및 분석』, 『일본학보』 57, 한국일본학회, 2003.12, 475쪽; 与謝野寛, 『東西南北』, 明治書院, 1896, 196~204쪽.
- 8) 이와 관련하여 윤석임이 발표한 논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일본어로 번역, 소개된 한국문학의 번역현황조사 및 분석』, 『일본학보』 57, 한국일본학회, 2003.12; 『일본의 한국문학 수용 현황에 대한 연구』, 『일본문화연구』 12, 동아시아일본학회, 2004.10; 『일본의 한국문학 수용 현황과 과제 및 대응방안』, 『일본학보』 62, 한국일본학회, 2005.2; 『일본의 한국대중문화 수용 현황 분석 - 일본의 신문 및 잡지기사 통계와 분석을 근거로 하여』, 『일본학연구』 20, 단국대 일본연구소, 2007.1; 『한국대중문화관점에서 본 일본에서의 한국문학의 수용에 대한 전망』, 『일본언어문화』 12,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08.4.
- 9) 이한정, 『일본의 한국문학 번역서지 목록(1945-2016)』, 『한국학연구』 4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2; 『1945년 이후 일본의 한국문학 번역 현황 개관』, 『한국학연구』 4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8. 그 외 해방 이전의 자료를 정리한 이한정의 논문으로는 『해방 이전 한국문학의 일본어 번역에 관한 연구 - ‘번역서지목록’ 작성을 중심으로』, 『비교일본학』 48, 일본학국제비교연구회, 2020.6이 있다.
- 10) 大村益夫, 『日本における朝鮮現代文学の研究・翻訳小史』, 『青丘学術論集』 2, 韓国文化研究振興財団, 1992.
- 11) 三枝壽勝, 『『韓国文学を味わう』報告書』, 国際交流基金アジアセンター, 1997; 三枝壽勝, 『朝鮮文学』, 原卓也・西永良成編, 『翻訳百年』, 大修館書店, 2000.

수용사를 정리하였다면, 최근에는 1960-70년대 일본조선연구소와 ‘조선문학의 회(朝鮮文學の會)’ 또는 김지하 담론에 주목한 다양한 미시적 연구들이 제출되고 있다.<sup>12)</sup> 이러한 연구들은 일본의 한국문학 수용사인 동시에 해외 한국학의 형성과 확산이라는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본고는 상술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2장에서 해방 이후 일본의 한국문학 수용사가 초창기에 재일조선인 또는 한국인 문학자 주도로 시작되었다가, 이후 일본인 문학 연구자와 문학자를 거쳐, 최근에는 전문 번역가 중심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발행처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 출판사와 재일조선인 계열의 출판사에서 대형 출판사를 거쳐 여러 출판사로 확산되면서 새 독자층을 획득해 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작품의 선정 기준도 문학사적 위상이나 베스트셀러라는 남북한 본국의 평가를 전제로 하였다가, 점차 일본인 연구자와 번역자, 즉 수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행해갔음을 보게 될 것이다. 3장에서는 2010년대 이후의 한국문학 붐에 대해 한류와의 연관성 속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4장에서는 한류 이후에야 비로소 한국문학이 일본의 ‘해외문학 시장’에 정착될 수 있었음을,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한류가 한국문학 출판에 끼친 가장 강력한 영향이었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2. 해방 이후 일본의 한국문학 수용사 개관

근대 이후 한국의 문학작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본에 소개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한국인 문학자가 당대 작품을 번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김사량이나 정인택, 김소운과 같이 일본어에 능통한 문인들이 번역자로 활동하였다. 한편 해방 이후 20여 년 동안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매우 특수한

12) 장문석, 『현해탄을 건넌 ‘타는 목마름’ - 1970년대 일본과 김지하라는 텍스트』, 『상허학보』 58, 상허학회, 2020; 최태원, 『전후 일본에서의 조선근대문학연구의 성립과 전개 - 〈조선문학의 회〉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상황이 연출되었다. 잘 알려져 있듯, 이 시기 공식적인 통로에 의한 한일교류는 막혀 있었는데, 한국에 있어 일본 대중문화는 ‘금지’의 대상이었으며,<sup>13)</sup> 반대로 전후 일본에 있어 한국/북한은 외면하고 싶은 과거를 체현하는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한국문학은 일본에 꾸준히 번역, 소개되었는데, 이를 경쟁적으로 주도한 것은 재일조선인과 한국인 문학자들이었다. 이때 일본은 한국과 북한 양국에 있어 자국 문학이 대리 경험을 벌이는 체제 전쟁의 장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한 정치적 상황은 일본에서의 한국문학 번역을 수용자인 일본인이 아니라 발신자, 즉 재일조선인과 한국인 문학자들이 주도하도록 하는 경향을 낳았으며, 이는 1965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 1970년대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해방 직후, 일본에서 먼저 집중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한 것은 북한 문단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이었다. 이러한 번역 작업들은 재일조선인 단체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는데, 특히 윤병옥이 창업한 조선문화사는 문학서적을 전문적으로 펴낸 출판사로 알려져 있다.<sup>14)</sup> 1960년대 초, 조선문화사에서는 이기영의 『고향』과 한설아의 『황혼』, 그리고 허남기가 편찬한 『현대조선시선』 등 식민지 시기 작품과, 이기영의 『두만강』과 같은 당대 대하장편소설이 출간되었다. 작품 번역은 대부분 소설가 이은직이 맡았고, 장정은 시인 허남기와 화가 김창덕이 담당하였다. 그 외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의 조선청년사에서 석윤기의 『전사들』과 이기영의 『한 여성의 운명』 등이 출간되었고, 일본공산당 계열의 신일본출판사에서는 ‘세계혁명문학선’으로 박용걸 등의 『암록강-조선소설선』과 황건의 『개마고원』이 출간되었다. 이러한 출판물들은 정치적 계몽이나 민족적 요청을 전제로 출간되었고, 번역자도 대부분 조총련 계열의 인사들이었다.<sup>15)</sup>

13) 김성민, 『일본을 금하다-금제와 욕망의 한국 대중문화사 1945-2004』, 글항아리, 2014.

14) 조선문화사에 대해서는 尹正淑, 『朝鮮文化社と尹炳玉』 上·中·下, 『月刊イオ』 233-235, 朝鮮新報社, 2015.11-2016.1. 조선문화사는 『조선문화』(동권 3호, 1962)라는 정기간행물을 펴내기도 하였다.

15) 大村益夫, 앞의 글, 306쪽.

해방 직후, 조총련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북한 문학이 더 활발하게 번역, 소개되던 흐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재일조선인 문학연구자 안우식이 1970년대 이후 조총련과 거리를 두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번역가로 이름을 알린 안우식은 신일본출판사에서 발간한 ‘세계혁명문학선’의 북한작품 번역을 담당하 바 있는데, 1970년대 이후에는 김사량의 평전 집필과 전집 편찬을 추진하는 한편, 당대 한국의 문학작품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다.<sup>16)</sup>

이처럼 해방직후부터 1970년대까지, 일본에서 한국문학의 번역, 소개를 주도한 것은 한국인 또는 재일조선인이었으며, 수용자인 일본 대중의 관심보다는 발신자인 한국/북한 양국의 체제 경쟁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구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로, 이 역시 문학 외적인 요인에서 촉발된 것이었다. 오랜 기간, 대체로 한국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견지해 온 일본에서는 1981년, 서울이 1988년 올림픽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한다.<sup>17)</sup> 그리고 한국이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1987년에는 민주화, 1993년에는 문민정부의 탄생 등의 변화를 이루어 내면서 한일 양국은, 미처 해결되지 못한 역사적인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보다 가까워지게 된다.

한국문학, 즉 남한의 문학이 북한의 문학을 제치고 주류로서 더 중점적으로 소개, 번역되기 시작한 것 또한, 북한보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대표적인 한국문학 번역자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 온 안우식은 1980년대 이후 윤홍길, 박경리, 한승원, 박범신, 이태, 장정일, 이문열, 한용운, 이육사, 신경숙, 서영은, 홍성원, 이문구 등의 작품을 일본에 소개하였으며, 그가 번역한 작품집은 주로 가도카와 쇼텐(角川書店), 고단샤(講談社), 슈에이사(集英社), 신초샤(新潮社) 등 대형

16) 안우식은 김태준의 『조선소설사』(1975), 장준하의 『돌베개』(1976), 백낙청의 『한국민중문학론』(1982), 유홍준의 『완당평전』(2005), 박유하의 『반일 민족주의를 넘어서』(2005) 등 한국의 인문학 관련 서적을 번역하였다.

17) 히라타 유키에, 『한국을 소비하는 일본 - 한류, 여성, 드라마』, 책세상, 2005, 43쪽.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안우식은 자신이 북한문학만이 아니라 당대 한국의 문학작품을 본격적으로 번역하게 된 계기로, 일본의 소설가 나카가미 켄지(中上健次)와 한국 문학자들의 교류를 든 바 있는데<sup>18)</sup>, 큰 흐름에서 보면, 이 또한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어난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나카가미는 1970년대 말부터 윤홍길, 한승원, 박범신 등 한국의 문학자들과 개인적으로 교류하면서 이들의 작품을 일본에 소개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 말부터 윤홍길의 작품집 『장마』와 『황혼의 집』, 장편소설 『에미』, 나카가미와의 대담집 『동양에 위치하다』가 연이어 출간되었고, 1980년대에는 나카가미 켄지 편 『한국현대단편소설』, 윤홍길의 『갓』, 한승원의 『탑』, 박범신의 『뜰』이 출간되었는데, 이러한 저작들의 출간은 나카가미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성사될 수 있었다.<sup>19)</sup> 이때 『장마』와 대담집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의 번역자는 안우식이었다.<sup>20)</sup> 나카가미는 『장마』를 높이 평가한 이유에 대하여 동족끼리 싸운 한국전쟁을 당사자 입장에서 냉철하게 형상화한 점을 든 바 있는데,<sup>21)</sup>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윤홍길의 시선은 한국 독자들에게는 결코 낯선 것이 아니었지만, 나카가미에게는 신선한 주제였다는 점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평가와 일본에의 소개에 비로소 수용자인 일본인의 관점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해방 직후 일본에서 한국문학의 번역 및 소개를 주도한 것은 앞서 말한 바 있듯, 재일조선인 또는 한국인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비록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나 한국 문학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본인 연구자들 또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 일본인 연구자가 한국문학에 접근하는 방식은 안우식과

18) 안우植, 「朝鮮にも文学があるんですか?」, 『民主文学』 501, 2007, 154~155쪽.

19) 안우植, 「現代韓国文学と中上健次」, 『國文學—解釈と教材の研究』 36(14), 1991.12, 87쪽. 안우식은 1980년대 중반 후쿠타케쇼텐(福武書店)의 의뢰로 박경리의 『토지』 제1부 번역에 착수하였는데, 판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박경리의 지인 윤홍길의 도움을 받았다. 안우식은 나카가미를 통하여 윤홍길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판권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되었다고 한다. 안우植, 「大地に根ざし、人間の運命描く」, 『東洋經濟新報』, 2008.5.16.

20) 가도카와쇼텐에서 나온 『갓』, 『탑』, 『뜰』의 경우는 각각 가미야 니지(神谷舟路), 야스오카 아키코(安岡明子), 하야시 마사오(林昌夫)와 공동으로 번역되었다.

21) 中上健次, 「尹興吉『長雨』の衝撃」, 『毎日新聞』, 1979.5.8.



달리 독서회나 공동 작업 위주로 이루어졌다. 1960년대 초반부터 일본조선연구소 내 문학연구회와 ‘조선문학의 회(朝鮮文學の會)’ 등을 중심으로 해방 전 작품을 읽는 움직임이 있었고, 오무라 마스오와 가지이 노보루는 연구회 활동을 통하여 ‘조선문학’을 일생의 과제로 삼게 된다.<sup>22)</sup> 훗날 ‘조선문학의 회’ 동인으로 활동하게 되는 조 쇼키치(長璋吉)는 조선연구소에서 개설된 강습회에서 한국어를 처음 배우기도 했다.

‘조선문학의 회’란 1970년 가을 일본에서 결성된 연구와 번역을 목적으로 한 단체로 오무라와 가지이, 조 등 동인 다섯 명으로 출범하였다.<sup>23)</sup> 조선문학의회는 일본인이 주도한 한국문학 연구 단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문학의회는 동인지 『조선문학-소개와 연구』(통권 12호, 1970~74)를 발간하는 한편, 단행본 『현대조선문학선 1·2』(1973~74)를 펴내어 해방기 및 1960~70년대 한국소설 등 총 27편을 번역하였다. 일본인이 번역한 최초의 한국문학 선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번역자들은 원고료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sup>24)</sup> 조는 당시 일본에는 한국문학을 체계적으로 읽는 사람도 없었고, 동인들의 어학 실력도 그다지 좋지 못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sup>25)</sup> 조선문학의회 활동은 1974년 여름 『조선문학-소개와 연구』 중간호를 펴내고 막을 내렸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오무라와 조의 활동은 문학연구와 연구서 번역으로 확대되었다. 오무라는 『한일문학의 관련양상』(1975)을 중심으로 한 김윤식의 논고와 임종국의 『친일문학론』(1976)을 번역하는 한편, 조는 김우종의 『한국 현대소설사』(1975)와 이청준의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1978)을 번역하고, 평론집 『한국소설을 읽다』(1977)를 펴냈다. 조와 한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사에구사가 이태준 작가론을 일본어로 연달아 발표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이

22) 최태원, 앞의 글, 287쪽.

23) 조선문학의회의역사는 1960년대 중반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1961)를 강독하는 모임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조선문학의회에 대해서는 최태원, 앞의 글, 300~325쪽.

24) 大村益夫, 『朝鮮文學關係日本語文獻目録』의編纂, 『書誌索引展望』 8-3, 日本索引家協會, 1984.8, 24쪽.

25) 長璋吉·三枝壽勝·川村湊, 『座談會 韓国という鏡面』, 『早稲田文學』 129, 1987.2, 9쪽.

다.<sup>26)</sup> 특히 이태준에 관한 논의는 한국에서 월북작가가 해금되기 이전에 제출된 선구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1980년대 이태준 단편선집의 출간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에는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에서 오무라와 사에구사, 조의 편역으로 『조선단편소설선』(상하, 1984)과 『한국단편소설선』(1988)이 출간되었는데, 이렇듯 대형 출판사에서 한국문학 선집을 출간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1980년대 이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단편소설선』은 해방 전 단편소설 22편을 묶은 이와나미 문고판 선집으로, 월북작가(이기영, 박태원 등)와 남북 양쪽에서 금지된 작가들(한설야, 김남천, 김사량, 이태준, 허준 등)의 작품들이 수록되었으며, 『한국단편소설선』은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남한에서 발표된 작품 19편으로 구성되었다. 이 선집 출간은 일본인 연구자가 외국문학으로서 수용한 한국문학을 스스로 읽고, 작품을 선정했다는 점에서<sup>27)</sup> 큰 의의가 있다. 수록된 작품은 세 연구자가 공동으로 선정하였는데, 특히 『조선단편소설선』의 경우에는 남북한 양측의 문학사적 평가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한다.<sup>28)</sup> 그러나 프로문학 작가와 구인회 작가, 여성 작가의 작품을 모두 수록한 『조선단편소설선』은 남북한이 탈냉전 이후에야 확정할 수 있었던 문학사 인식을 선취한 것이었다.<sup>29)</sup> 이처럼 한국문학을 하나의 외국문학으로서 접근하는 경향은 이후 오무라와 일본인 한국문학 연구자 총 9명이 참여한 헤이본사(平凡社)의 ‘조선근대문학선집’(2005~ )으로 이어지게 된다.<sup>30)</sup>

1980년대부터 서서히 생기기 시작한 한국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더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한국

26) 長璋吉, 「李泰俊」, 『朝鮮學報』 92, 朝鮮學會, 1979; 三枝壽勝, 「李泰俊作品論」, 『史淵』 117, 九州大学文学部, 1980; 三枝壽勝, 「解放後の李泰俊」, 『史淵』 118, 九州大学文学部, 1981.

27) 三枝壽勝, 『朝鮮文學』, 앞의 책, 226쪽.

28) 三枝壽勝, 「解説」, 大村益夫·長璋吉·三枝壽勝編訳, 『朝鮮短篇小説選』 上, 岩波書店, 1984, 411쪽.

29) 장문석, 「연대의 이념에서 주체성의 세계로 - 냉전기 일본의 조선문학 연구와 조선어」, 『일본비평』 27,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22, 116쪽.

30) ‘조선근대문학선집’은 이광수의 『무정』, 강경애의 『인간문제』, 채만식의 『태평천하』, 염상섭의 『삼대』, 이태준의 『사상의 월야』, 이기영의 『고향』 등 해방 전 장편소설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선집으로 현재 8권까지 간행되었다.

이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 후 거의 반세기가 지날 때까지, 일본 대중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sup>31)</sup> 칼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의 본질적인 논리는 “동지”와 “적”이라는 범주들 사이의 대립에, 즉 파토스가 아니라 에토스의 대립물에 놓여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32)</sup> 이에 비추어 생각하면, 한일 양국의 딜레마는 서로를 ‘동지’와 ‘적’ 사이에서 확정짓기 어렵게 만드는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 시기, 조선을 일본의 일부로, 그리고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든 ‘내선일체’의 사상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외상적인 것이었으며, 일본인과 닮은 ‘조선인’은 일본인들에게 있어, 지체의 용어를 빌어 말하자면, “순치될 수 없는 괴물”이자 “사물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겠다.<sup>33)</sup> 외형적인 모습이나 언어 사용만으로 선뜻 구별할 수 없는 식민지 조선인은 때로는 ‘동지’일 수도, 때로는 ‘적’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대상이자 공포를 유발하는 ‘괴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알 수 없는 심연’으로서의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무의식적인 공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해방 이후 일본에 남은 재일조선인, 즉 ‘자이니치’에 대한 차별과 혐오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을 지칭하는 말로 통용되는 ‘자이니치’라는 표현<sup>34)</sup> 자체가 이러한 차별과 혐오가 어떠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자이니치(在日)’가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지칭하는 표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재일(在日), 즉 일본에 있다(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 대한 혐오와 공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다. 강상중이 자

31) 예외적으로 김지하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이 있었지만 이는 여전히 매우 제한된 집단 안에서의 움직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논문에서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32) 케네스 레이너드, 정혁현 역, 『이웃의 정치신학을 위하여』, 『이웃-정치신학에 관한 세 가지 탐구』, 도서출판b, 2010, 28쪽.

33) 슬라보에 지젝, 정혁현 역, 『이웃들과 그 밖의 괴물들: 윤리적 폭력을 위한 변명』, 위의 책, 229쪽.

34) 강재언에 따르면 “‘자이니치’라는 호칭은 일본 사회가 자이니치에게 붙인 것이 아니라, 자이니치 스스로가 1970년대 중반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표현이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 사회의 인식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姜在彦, 『在日朝鮮人』であることの意味, 『季刊三千里』 50, 1987, 47쪽(이한정, 『자이니치』 강상중의 자서전과 일본 사회, 『일본학』 50,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2020.5, 76쪽에서 재인용).

신의 ‘자이니치’라는 정체성에 대해 “내 얼굴을 보는 것조차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하고 “저절로 사진 찍는 것을 기피하게” 만든다고 한 “재일이라는 것에 따라붙는 꺼림칙한 느낌”<sup>35)</sup>은 바로 이러한 혐오와 공포의 결과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괴물성’의 내용을 구성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이니치’로서의 코리안』을 쓴 하라지리 히데키가 “‘자이니치’라고 하면 일시적 체재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 즉 “일본 사회의 구성 멤버가 아니라 ‘바깥사람’=‘외국인’이라고 생각 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 표현이 담고 있는 배제의 논리를 배격하고, “‘자이니치’란 일본에 영주할 의사를 지닌 사람들로 단지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외국인이 아니[며]”, “국적이 일본이 아니어도 일본 사회의 멤버다”라고 강변한 것은, 좋은 지적이자 올바른 정치적 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어떠한 의미에서는 사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sup>36)</sup> ‘자이니치’라는 표현의 핵심은 그 배제의 논리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설하고 있는 혐오의 원인에 있다. 재일조선인은 너무 가까이에 있는, 즉 ‘우리’ 안에 있는, 구별이 불가능한 타자이기 때문에 ‘괴물’이며, ‘자이니치’라는 호명은 바로 이러한 혐오의 원인이 인접성 그 자체라는 것을 드러낸다.

한편 독립한 ‘한국’ 또한 과거사 문제로 얽힌 적대적 관계이기도 하면서, 세계2차 대전 이후 미국의 패권주의 하에서 함께 ‘자유주의 진영’에 속한, 정치적 동지 관계에 있는 이웃 국가가 됨으로써,<sup>37)</sup> 적이자 동지라는 이중구속의 상황이 연장, 지속되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해방 후 오랜 기간, 이 괴물로서의 이웃을 지우고 싶은 대상, 또는 실제로 지워진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1990년대 이후, 더 본격적으로는 200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일본에서 ‘한류’, 즉 한국 대중문화의 수용과 유행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인식론상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35) 강상중, 고정에 역, 『재일 강상중』, 삶과꿈, 2004, 13쪽.

36) 原尻英樹, 『「在日」としてのコリアン』, 講談社, 1988, 3쪽(이한정, 앞의 글(2020), 75쪽에서 재인용).

37) Youngju Ryu, *Writers of the Winter Republic: Literature and Resistance in Park Chung Hee's Korea*,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6, pp.29~35.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조선’ 대신 ‘한국’이라는 명칭이 더 적극적으로 사용되게 된 현상과도 맞물려 있다.

1996년, 한국과 일본은 2002년 월드컵의 공동개최지로 결정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 월드컵 개최 이후까지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sup>38)</sup> 여기에 더하여 1998년부터 한국에서 일본 대중 문화의 개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양국의 문화적인 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sup>39)</sup> 이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는 한국 문학에 대한 일본 독자의 관심 또한 높아지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일본 주요 문예지에 ‘한국’ 문학 작품이 소개되기 시작한다. 다음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일본 주요 문예지를 통해 소개된 한국문학 작품 목록으로, 특히 안우식의 두드러진 활동이 눈에 띈다.

〈표1〉

발행일	작가	제목	번역자	발표지면	기타
1986.3	임철우	아버지의 땅	안우식	신초	
	임철우	봄날(일부)	안우식	신초	
1991.4	윤홍길	양	안우식	신초	
1991.11	장정일	아담이 눈뜰 때	안우식	신초	단행본 출간(1992.4)
1992.6	최운	아버지 감시	안우식	신초	
1993.3	윤홍길	동심과 마성	안우식	신초	나가가미 켄지 작가론
1993.4	이문열	필론의 돼지	안우식	스바루	제1회 한일작가회의의 관련
	김원일	가을별	안우식	스바루	
1994.4	김주영	모범사육	안우식	스바루	제2회 한일작가회의의 관련
1996.6	이문열	아우와의 만남	윤학준	스바루	
1997.2	김지하	김지하 최근시	와타나베 나오키	신초	
1997.6	이문열	황장군전	윤학준	스바루	‘세계문학 단편 시리즈’

38) 히라타 유키에, 앞의 책, 27쪽.

39) 김성민, 앞의 책, 194쪽.

1997.8	로정법	바다는 내 사랑	안우식	스바루	'북조선의 문학' 특집
	한용빈	폭풍우가 지난 뒤에	안우식	스바루	
	전동우	이런 날이면	안우식	스바루	
	현철성	붉은 밀림	안우식	스바루	
1998.8	윤대녕	은어남시통신	안우식	스바루	'한국현대문학의 뉴 웨 이브' 특집
	신경숙	별관위의 빈 집	안우식	스바루	

안우식은 『신초』와 『스바루』에 임철우, 윤홍길, 장정일, 최윤, 이문열, 김원일, 김주영, 윤대녕, 신경숙의 작품과 같은 동시대 작품을 번역, 소개하였으며, 일본의 주요 문예지 기고를 통해 수시로 한국 문단의 소식을 전했다. 『스바루』에 실린 작품 중에는 「아담이 눈뜰 때」처럼 화제성을 고려한 작품이나 한일작가회의에 맞춰 소개된 작품도 있었다. 「아담이 눈뜰 때」는 일본에서도 문예지에 소개된 이후 큰 화제가 되었고,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낡은 것(어머니의 모습 또는 정치적 좌절)과 새로운 것(성적 묘사)이 뒤섞인 점을 들며 작품을 높이 평가하였다.<sup>40)</sup>

한일작가회의란 한일 양쪽 작가와 평론가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는 행사로, 1992년에 출범한 이래 2002년까지 총 여섯 차례 개최되었다. 한일작가회의는 안우식과 나카가미 켄지, 소설가 시마다 마사히코(島田雅彦), 평론가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 등이 실무를 맡았고,<sup>41)</sup> 발제문과 관련 기사는 주로 『스바루』와 『문학과지성』에 실렸다. 2000년대 중반에는 한일작가회의를 계기로 만난 신경숙과 소설가 쓰시마 유코(津島佑子)의 왕복서간도 『스바루』에 연재되었다.<sup>42)</sup> 『스바루』의 발행처인 슈에이사에서는 안우식의 번역으로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과 여성작가 작품집 『6 Stories』, 신경숙의 『외딴방』과 『엄

40) 『身近な異文化への目』, 『朝日新聞』, 1991.11.3.

41) 한일작가회의는 일본 아시아 아프리카작가회(AA작가회의)가 한국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출범하였다. 安宇植, 『日・韓文学シンポジウム開催に向けて』, 『季刊aala』 87, 1992.9. 제1회 회의 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나카가미 켄지가 큰 역할을 하였는데, 그는 개회를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한일작가회의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川村湊, 『私と日韓文学交流』, 『社会文学』 52, 2020.

42) 왕복서간 『산이 있는 집 우물이 있는 집』(1996)의 번역은 한일작가회의에 통역자로 참여한 김훈아가 맡았다.

미를 부탁해』가 출간되었다. 『6 Stories』에는 하성란, 조경란, 공지영, 김인숙, 송경아, 김형경 등 여성작가들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이처럼 안우식은 나카카미 켄지와 한일작가회를 매개로 작가들과 직접 교류하였고, 1990년대 이후 슈에이사와 『스바루』를 통해 당대 한국 작품을 일본에 다수 소개하였다. 『스바루』의 ‘북조선의 문학’ 기획이나 한일작가회의 관련 출판물에서 짐작되듯이 슈에이사의 한국문학 출판은 안우식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출판사가 한국문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작품을 선정하였다기보다, 한국에서 화제가 된 작품을 그대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슈에이사만의 특징이 아니라 일본 출판계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할 수 있다.<sup>43)</sup>

2000년대 초 이와나미쇼텐에서는 사에구사 등을 번역자로 하여 『현대한국 단편선』(상·하, 2002)을 출간하는데, 여기에는 1980-90년대 단편소설 13편이 수록되었다. 앞서 언급한 『조선단편소설선』과 『한국단편소설선』에 이어 『현대한국단편선』이 출간되면서 1920년대 이후 발표된 주요 작품들이 비로소 체계적으로 일본에 소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무라, 사에구사, 조의 편역으로 출간된 선집들과 달리, 『현대한국단편선』은 사에구사 주변에서 활동하는 문학 연구자들이 함께 번역을 맡았다. 사에구사는 『해설』에서 간략한 작품 해설과 함께 ‘기묘’한 선집 출간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데, 해설에 따르면 당초 선집 기획은 평론가 지명관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sup>44)</sup> 지명관은 해방 이후 한국의 대표작 목록을 제시하였지만, 사에구사는 한국 측에서 추천받은 작품을 번역하는 기존 방식을 거부하고 일본인 연구자 주도로 작업을 진행하고자 했다. 이는 전공자가 한 국가 또는 언어권의 문학을 외국문학으로서 접근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견지하게 되는 태도라고도 할 수 있다. 『현대한국단편선』에는 상권에는 신경숙, 공선옥, 하성란, 은희경, 김종광, 김영하, 윤희명

43) 館野哲, 『日本における韓国文学書の翻訳出版－刊行状況と課題をめぐって』, 韓国文学翻訳院からの依頼原稿, 2010.10. 이 글은 현재 미디어필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https://www.murapal.com/2010-06-29-02-02-34.html>(최종 검색일: 2022.9.23)

44) 이하 본 단락의 내용은 다음 해설을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하였다. 三枝壽勝, 『解説』, 『三枝壽勝他訳』, 『現代韓国短篇選』 下, 岩波書店, 2002, 281~293쪽.

등 1990년대의 작품들이 수록되는 한편, 하권에는 임철우, 이창동, 박상우, 양귀자, 박완서, 최인호 등 1980년대의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상술한 작가 이름에서도 짐작되듯이, 광주항쟁이나 노동운동 등 이른바 참여문학은 선정되지 않았다.<sup>45)</sup> 그 대신 임철우의 『아버지의 땅』과 이창동의 『소지』,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2』 등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을 다룬 작품들이 선정되었다.

일본인 연구자 외에 한국문학을 일본에 소개한 주체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자주강좌가 있다. 1970년대 이후 대학에서 전유되는 지식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자주강좌 중 하나로 일본 각지에 한국어 교실이 개설되었다.<sup>46)</sup> 특히 한국어 고급반에서는 독해 교재로 문학작품을 읽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일부는 단행본으로 출간되기까지 한 것이다. ‘무궁회의 회(むくげの会)’는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7편을 뽑아 『조세희 소품집』을 펴냈고, 역사학자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와 현대어학숙은 심훈의 『상록수』를 번역하였다. 이 두 작품은 한국어를 학습한 회원들이 독서회를 중심으로 공동 번역한 것이었다.<sup>47)</sup> 최근 번역된 구효서의 『나가사키 파파』 또한 이와 같은 계열에 속한다.

〈표2〉 자주강좌를 통해 번역된 단행본 목록

저자	제목	번역자	출판사	발행년
조세희	조세희 소품집	무궁회의 회	무궁회의 회	1980
심훈	상록수	가지무라 히데키, 현대어학숙 상록수의 회	류케이쇼샤	1981
	유리 파수꾼	압탐의 회	가이후샤	1994
	겨울의 환	번역의 회(사에구사 도시카쓰 감수)	이사히컬처 센터	1995

45) 사에구사는 작품을 선정하면서 번역자 사이에서 1980년대 한국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에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광주항쟁이나 노동운동, 반정부운동을 형상화한 작품은 수록되지 않았다고 한다. 三枝壽勝, 위의 글, 285쪽.

46) 자주강좌에서 시작된 한국어 교실의 실체에 대해서는 館野哲, 『自主講座から生まれた韓国語の翻訳家たち』, 『出版ニュース』 2287, 出版ニュース社, 2012.9.上旬.

47) 『상록수』는 현대어학숙 회원 12명이 각자 번역한 원고를 검토회를 통해 다듬고 최종적으로 가지무라 감수하였다고 한다. 加藤兼三, 『沈薫著「常緑樹」の翻訳を終えて』, 『季刊三千里』 29, 三千里社, 1982.2.



선우휘	불꽃	이카이노에서 선우휘 작품을 읽는 회	하쿠테이샤	2004
	비밀의 회원	한아름(김경자 감역)	소진샤	2005
구효서	나가사키 파파	윤영숙, YU번역회	쿠은	2012

한편 『유리 파수꾼』과 『겨울의 환』, 『불꽃』, 『비밀의 회원』은 회원들이 단편 한 편씩을 번역한 작품집이다. 『유리 파수꾼』은 한국에서 출간된 여성작가 단편선집을 저본으로 번역한 것인 반면, 『겨울의 환』과 『비밀의 회원』은 주로 1980~90년대 여성작가 작품을 일본인 번역자들이 주체적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번역자는 대부분 어학 교실 운영자나 통역자, 회사원, 주부,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한국어 학습자들이었다. 다만 『겨울의 환』을 편역한 ‘번역의 회(ほんやくの会)’는 예외적으로 사에구사 밑에서 한국문학을 공부한 연구자와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한 독서회였으며, 이 작품집에는 번역 작품 외에 번역자가 집필한 작품론도 함께 실려 있다.

2000년대까지 일본의 한국문학 번역은 제일조선인 연구자와 일본인 연구자, 그리고 자주강좌 학습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문학작품을 읽는 사람들은 한국에 관심을 가진 일본의 극소수 독자층에 한정되어 있었다. ‘한국’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자주강좌 활동에 나선 이들 사이에는 동시대 문학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는 하나의 예외로서 상세한 주석을 다는 독특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sup>48)</sup> 이렇듯 소수의 연구자와 학습자 사이에서만 향유되던 일본의 한국문학은 2010년대 중반 이후 큰 변화를 겪게 된다.

### 3. 한류 이후의 문학 출판

1990년대 이후 한일 양국 사이에 민간 교류가 늘어나면서 일본에 소개되는

48) 와타나베 나오키, 「K文学の日本における受容について－研究者の立場からみた韓国文学とフェミニズム」, 『일본학보』 131, 한국일본학회, 2022, 9~10쪽.

한국문학의 양상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대중문화 영역에서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 관심이 문학에까지 확대되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첫 작품으로 『서편제』의 원작 소설인 이청준의 『남도사람』이 일본어로 번역, 출간된 사례를 들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는 1993년 4월 단성사에서 처음 개봉하였으며, 한국 영화의 가능성을 대내외적으로 확인시킨 역작이다. 이 영화는 1년 후인 1994년 6월, 일본에도 소개가 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영화 개봉 시기에 맞춰 하야카와쇼보(早川書房)에서 그 원작 소설인 이청준의 『남도사람』을 동시적으로 번역, 출간했다는 점이다.<sup>49)</sup> 이때 그 제목을 『남도사람』이라 하지 않고, 『바람의 언덕을 넘어서-서편제(風の丘を越えて-西便制)』라고 한 것에서 우리는 출판사 측이 번역 소설과 영화와의 연결고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일본어 번역본의 표지에는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 오정해(극중 이름 송화)가 창을 하는 장면이 삽입되었으며, 책 소개에도 “한국영화사상 최대 히트작의 원작 『남도사람』의 완역”이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다.<sup>50)</sup> 이로써 『남도사람』은 대중문화 영역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영화의 원작 소설이 일본에서 번역, 출간된 첫 번째 한국소설이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후 일본에서 한류의 인기가 꾸준한 흐름으로 자리잡으면서 더욱 본격화된다.

199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한국에서의 일본 대중 문화 개방은, 양국 사이의 민간 교류를 더욱 촉진시킴은 물론, 우려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일본에서 한류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실제로 일본 대중 문화 개방이 시작된 직후인 1999년, 한국영화 <쉬리>가 일본 도쿄 국제영화제 개막 작품으로 선정되면서 12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성과를 냈고,<sup>51)</sup> 이로써 ‘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1차 한류 붐의 시발점으로 기록되게

49) 이는 영화를 수입한 시네카는 대표 이봉우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이었으며, 『남도사람』을 일본어로 번역한 네모토 리에는 「역자 후기」에서 이봉우에 대한 사사를 표현 바 있다. 根本理恵, 「訳者あとがき」, 李清俊, 根本理恵訳, 『風の丘を越えて-西便制』, 早川書房, 1994, 255쪽. 네모토 리에는 영화 『서편제』의 자막을 담당하기도 했다.

50) 일본 아마존 사이트에 게재된 해당 작품의 “상품 설명”란 참조.

51) 히라타 유키에, 앞의 책, 47쪽.

된다.<sup>52)</sup> <쉬리> 또한 앞서 <서편제>를 일본에 소개했던 시네카논에서 수입한 작품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대표 이봉우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3)</sup> 이렇듯 대중문화 영역에서 먼저 불기 시작한 한류 열풍은 문학 출판 시장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한류 열풍의 영향은 상업 출판 분야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윤석임이 ‘변안 소설’이라고 명명한 바 있는, 『선물』(ラストプレゼント, 2002), 『친구』(友へ チング, 2002), 『엽기적인 그녀』(獵奇的な彼女, 2003), 『실미도』(シルミド, 2004) 등 한국 영화 대본을 소설화한 작품들이 영화의 인기를 등에 업고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sup>54)</sup> 이를 본격적인 문학 출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변안소설의 출간이 “일본에서 한국문학을 정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듯이,<sup>55)</sup> 한국적 서사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출판사들은 한국 영화 원작 소설로 눈을 돌리게 된다.

2005년 2월, 카와데쇼보신샤(河出書房新社)는 귀여니의 『늑대의 유혹』을 번역, 출간한다.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게 된 귀여니의 이 소설은 한국에서 2002년 단행본으로 출간, 2004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큰 성공을 거둔 작품으로, 카와데쇼보신샤는 일본에서의 영화 개봉에 맞추어 그보다 한 달여 앞선 2005년 2월 16일, 그 원작 소설을 출간한 것이다. “한국 젊은이들을 눈물에 젖게 만든 감동의 인터넷 순애소설”이라 소개된 이 번역

52) 도쿄국제영화제는 출범 초기부터 한국영화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도쿄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소개된 것이 <쉬리>가 처음은 아니다. 1987년 제2회 도쿄국제영화제에서 이장호 감독의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가 ‘국제영화비평가상’을, 1992년에는 정지영 감독의 <하얀 전쟁>이 국제경쟁부문의 대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바 있었다(김동호, 『김동호의 세계 영화제 기행 <26> 도쿄국제영화제』, 『국제신문』, 2010.7.7.). 그러나 이토록 많은 일본 관객을 극장으로 이끈 것은 <쉬리>가 처음이었다.

53) 영화사 시네카논의 역할에 대해서는 채경훈, 『1980-90년대 재일조선인 영화 제작·배급 회사의 한일 영화 교류사적 의의와 역할』, 『아시아영화연구』 15-1,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2022, 315~319쪽.

54) 윤석임, 앞의 글(2004), 109쪽. 이 중 『선물』(竹書房), 『친구』(文藝春秋), 『엽기적인 그녀』(日本テレビ放送網), 『실미도』(角川書店) 등은 아직도 일본 아마존 사이트 등의 인터넷서점에서 문고본을 구할 수 있다.

55) 위의 글, 110쪽.

본의 띠지에는 조한성, 강동원, 이청아가 들어간 영화 속 장면이 크게 확대되어 실렸으며, 배우들의 이름 또한 명시되었다. 영화 『늑대의 유혹』은 그 후, 2005년 3월 19일, 일본에서 개봉하여 큰 인기를 끌게 된다.<sup>56)</sup> 비슷한 시기, 일본방송출판협회(日本放送出版協會)에서는 귀여니의 또 다른 인터넷 소설, 『그 늙은 멋있었다』(2005.4)의 번역본을 출간하는데, 이 작품 역시 한국에서 『늑대의 유혹』과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영화의 원작 소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sup>57)</sup>

이렇듯 영화의 성공에 힘입어 원작 소설이 번역된 또 하나의 예로,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꼽을 수 있다. 2005년 4월 한국에서 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고, 2006년 9월 영화화되어 관객수 200만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둔 이 작품은, 일본의 출판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작가 공지영은 앞서 언급한 자주강좌를 통해 번역된 작품집 『겨울의 환』(1995)과 『비밀의 화원』(2005)에 각각 단편 「꿈」과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가 실린 바 있으며, 안우식이 편역한 『6stories 현대한국여성작가단편』(2002)에도 단편 「인간에 대한 예의」가 수록되어, 일본에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작가였다. 게다가 영화가 개봉하기 6개월 전인 2006년 3월에는 마침 공지영이 일본의 인기 작가인 츠지 히토나리와 함께 쓴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이 일본에서 출간된 상황이었다.<sup>58)</sup>

앞서 언급한 『늑대의 유혹』의 주연배우를 맡아 일본 관객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강동원이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주인공으로 출연한다는 점 또한 이 소설을 더욱 매력적인 콘텐츠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일본에서 영화가 공개되기 두 달 전인 2007년 5

56) 김기영, “영화 ‘늑대의 유혹’ 강동원, 일본에서 인기”, 뉴스타운, 2005.4.30.

57) 영화 『그 늙은 멋있었다』는 이환경 감독, 손승헌, 정다빈 주연의 영화로 『늑대의 유혹』만큼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으며, 일본에서는 2009년 9월 공개되었다.

58) 츠지 히토나리는 예쿠니 가오리와 함께 쓴 『냉정과 열정 사이』로 특히 유명세를 얻은 작가로, 이 소설이 1999년 한국에 번역, 소개되면서 한국에서도 잘 알려지게 되었다. 두 연인 중 남성의 이야기를 남성 작가가, 여성의 이야기를 여성 작가가 쓰는 방식으로 구성된 『냉정과 열정 사이』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 츠지 히토나리가 남성 주인공의 이야기를, 공지영이 여성 주인공의 이야기를 쓴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은 한국에서 2005년 12월, 그리고 일본에서는 3개월 후에 출간되었다.

월 신초사에서 번역, 출간되었으며, 2008년 12월에는 만화 버전으로도 출간된다.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일본어 번역본 표지에는 폴라로이드 사진을 들고 있는 수갑을 찬 손이 그려져 있는데, 그 폴라로이드 사진에 공식 영화 포스터로 사용된 강동원과 이나영의 모습이 담겨 있어, 영화와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후 신초사는 2012년,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2009)도 번역, 출간하게 되는데, 일본에서의 번역이 『도가니』가 한국에서 영화화된 2011년 9월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sup>59)</sup> 즉, 2000년대 후반 이후 신초사에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과 『도가니』를 번역, 출간하게 된 배경에는 저자인 공지영이 한국의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점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이 작품들이 상당한 수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의 원작소설이라는 점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드라마를 중심으로 하는 2차 한류 붐은 2003년 <이브의 모든 것>이 방영된 데 이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겨울 연가>가 일본 방송을 통해 수 차례 방영되면서 본격화되는데, 이러한 흐름은 출판계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을동화』(秋の童話, 2002), 『겨울 연가』(冬のソナタ, 2004), 『아름다운 날들』(美しき日々, 2003), 『여름 향기』(夏の香り, 2004), 『올인』(オールイン 運命の愛, 2004) 등, 당시 인기 드라마 대본을 소설화한 ‘번안소설’이 가장 먼저 일본 대중과 만나게 된다.<sup>60)</sup> 당시 이들 번안소설들은 모두 일본 아마존 사이트 판매순위에서 수위를 차지하였으며,<sup>61)</sup> 2차 한류 붐을 주도했던 『겨울 연가』의 경우, 그 문고판 소설이 86만 부나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sup>62)</sup> 이로써 드라마의 번안소설들 또한 영화의 번안소설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적 서사의 소구력을 증명, 일본의 출판

59) 신초사에서는 공지영의 『즐거운 나의 집』도 번역되었는데, “엄마는 유명작가, 세 번이나 이혼! 한국에서 밀리언셀러를 연발하는 저자(커버 사진)가 자신과 딸들을 모델로 쓴 장편”이라는 자극적인 광고문과 함께 작가의 사진이 단행본 표지를 장식하였다.

60) 윤석업, 앞의 글(2004), 109쪽.

61) 윤석업, 앞의 글(2005), 157쪽.

62) 김도형, 『“겨울연가” 경제적 효과』, 『한겨레』, 2004.5.20.

사 및 대중이 드라마의 원작 소설로 눈을 돌리게 하는 과도기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게 된다.

이러한 한류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가장 먼저 번역, 소개되는 흥미로운 예를 보여주는 한국 드라마의 원작 소설 작가로 조창인을 꼽을 수 있다. 조창인은 2000년 1월 발간된 『가시고기』가 대형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한국에서 큰 주목을 받은 대중소설 작가이다.<sup>63)</sup> 이 소설은 2002년, 한국어를 그대로 음역표기한 『가시고기』라는 제목으로 일본에 처음 번역, 소개되는데, 이때까지는 이 소설이 한국에서 160만 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작품이라는 사실만이 강조되고 있다. 본격적인 한류 드라마 붐이 불기 이전의 이 작품은 그러나 당시에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sup>64)</sup>

그러나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난 2005년 9월, 일본에서의 한류 드라마 붐을 타고 조창인의 『그녀가 눈뜰 때』(1997)가 번역, 소개되며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 소설은 한국에서 1998년 방영된 김희선, 류시원 주연의 드라마 『세상 끝까지』의 원작소설로, 일본에서는 드라마 제목과 더 가까운 『이 세상의 끝까지(この世の果てまで)』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이때 책 광고문에 “주연 류시원도 통곡! 한국 대히트 순애 드라마 원작”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 드라마와의 연관성을 책 홍보에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전경린의 『황진이』, 이정명의 『바람의 화원』과 『뿌리 깊은 나무』, 백영옥의 『스타일』, 정은결의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과 『해를 품은 달』 등의 드라마 원작 소설들이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번역,

63) 『가시고기』는 그 해 12월, MBC의 창사특집 4부작 드라마로 만들어져 방영된 바 있기도 하다. 김형호, 『소설 '가시고기' 안방극장서 본다-MBC 특집극 4부작 내달 방영』, 『한경라이프』, 2000. 11.10.

64) 흥미로운 것은, 이 소설이 이후 2011년 2월, 번역자 및 출판사를 달리 하여 『굿라이프』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 새롭게 번역 출간되는데, 일본 후지 텔레비전에서 이 새로운 번역을 원작으로 하여 드라마를 제작한다는 점이다. 일본 드라마 『굿라이프』는 「1리터의 눈물」의 각본가로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오시마 사토미가 각색하고, 『GTO』의 주연 배우로 역시 한국에서도 유명한 소리마 치 타카시가 주연을 맡아, 소설이 재출간된 직후인 2011년 봄, 일본에서 방영된다. 이후 일본 콘텐츠의 판권을 사서 한국에서 다시 드라마화하거나, 한국 콘텐츠의 판권을 사서 일본에서 드라마화하는 등의 교차 제작은 더욱 활발해지게 되는데, 『굿라이프』는 이러한 시도의 첫머리에 놓인 작품으로 주목을 요한다. 후지 텔레비전 홈페이지 참조. [https://www.fujitv.co.jp/b\\_hp/goodlife/](https://www.fujitv.co.jp/b_hp/goodlife/)

출간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작품의 책 소개에 인기 드라마의 원작소설이라는 사실이나, 해당 드라마의 방영시기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다.<sup>65)</sup> 이는 2차 한류의 여파가 출판계에까지 미치면서, 어떠한 작품이 번역될 지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확인시켜준다.

3차 한류는 주로 케이팝 즉, 한국대중음악의 유행을 지칭하는데, 2001년 보아의 일본 데뷔 때부터 그 초석이 놓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영역에서 한류 붐이 본격화된 것은 그 후 십여 년이 지난 2010년을 전후해서이다.<sup>66)</sup> 그 후 다시 십여 년이 지난 오늘, 이러한 케이팝의 여전한 영향력은 한국 책을 홍보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인기 아이돌의 이름들을 통해 쉽게 감지된다. 2021년 3월 일본에 번역, 소개된 권라빈의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어』의 책 소개란에는 “BTS의 뷁가 읽은 화제의 에세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해 11월에 출간된 안규철의 『사물의 뒷모습-안규철의 내 이야기로 그린 그림』은 “BTS 리더 RM이 책에 사인을 요청하고 이후 사진을 올려 화제가 된 한국 에세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2022년 1월 번역된 김지훈의 『참 소중한 너라서』는 “한국에서 국민 에세이로 불린 50만 부 베스트셀러! ★샤이니, NCT, 뉴이스트, 스트레이 키즈, SF9, 전 아이즈원, 배우 남주혁 등 한국 스타들이 읽었다는 SNS에서 화제의 책, 대망의 일본어 번역!”이라는 소개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스타들을 아예 총망라하고 있을 정도이다.

현재 일본에서의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는 보통 4차 한류 붐으로 지칭된다.

65) 다음은 이들 소설의 소개 문구를 일본 아마존 사이트의 책 소개란을 참조하여 번역한 내용이다. “NHK종합채널에서 가을부터 방영되는 한국 역사드라마 황진이의 소설판. 실존했던 조선 최고 기생 황진이의 파란만장한 생애”(황진이); “2008년에 한국 SBS에서 제작·방송. 일본 KNTV에서 2009년 1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S닛폰TV에서 2009년 10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 방송”(바람의 화원); “류시원 김혜수 주연의 한국 드라마 스타일 원작 소설”(스타일); “드라마 <두근두근☆성균관 스캔들> 원작 등장!!”(성균관 유생의 나날); “2011년 10월 5일부터 같은 해 12월 22일까지 한국 SBS에서 방송. 2012년에 KNTV에서 ‘뿌리깊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방송. 같은 제목으로 2014년에는 TV도쿄에서, 2014~2015년에는 BS아사히에서 방송”(뿌리 깊은 나무); “2013년 1월 20일부터 NHK-BS 프리미엄으로 방송 중인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의 원작 소설, 대망의 일본판이 등장!!”(해를 품은 달) 등.

66) 보아에 앞서 한국에서 최고 인기를 구가하던 SES가 1998년 일본에서 데뷔하지만 별다른 반향은 이끌어내지 못한다. 히라타 유키에, 앞의 책, 47~49쪽.

4차 한류 붐은 한국 문화의 인기와 영향력이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등의 대중예술의 영역을 넘어, 생활의 영역에까지 확대된 것을 말한다. 한국 음식에서부터 화장품, 패션 등 현대 사회의 소비문화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한국 문화가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다. 특히 도서출판 영역에서는 이민경의 『우리에게 언어가 필요하다-입이 트이는 페미니즘』(타바복스, 2018.12)과 김지혜의 『선량한 차별주의자』(오오츠키쇼텐, 2021.8) 등 사회학 관련 서적과, 김수현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와니복스, 2019.2)와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와니복스, 2020.12), 하완의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다이아몬드사, 2020.1), 백세희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1(코분샤, 2020.1), 2(코분샤, 2020.12), 댄싱스네일의 『게으른 게 아니라 충전 중입니다-어제도 오늘도 무기력한 당신을 위한 내 마음 충전법』(CCC미디어 하우스, 2020.5), 『적당히 가까운 사이-외롭지도 피곤하지도 않은 너와 나의 거리』(CCC미디어하우스, 2020.12) 등,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에세이들이 빠르면 6개월, 늦어도 2년 정도 만에 일본에서 출간되어 인기를 끄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된 독자층은 20대와 40대 여성이며, 특히 20대 독자는 평소에 독서 습관이 없는데도 한국 에세이를 즐겨 읽는다고 한다.<sup>67)</sup> 이러한 에세이집들의 인기가 케이팝 아이돌 스타들의 언급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는 점 또한 한류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보여준다.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부터 본격화된 한국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등 대중문화, 더 나아가 라이프스타일의 인기는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류 이전의 한국은 일본에게 있어 (물론 한국에게 있어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지나치게 가까이에 있는 ‘괴물 같은 이웃’이었다. 이는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조선인에게 같은 황국의 신민이기를 강제하는 온갖 동화 정책을 펼친 것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했다. 식민지 시기, 표면적으로는 내선일체를 이야기하면서도, 일본인들 역시 조선인을 식별해낼 수 있게 해주는 표지들을

67) 『「出る本が全部ヒット」日本でなぜ韓国エッセーがブームに?』, 『毎日新聞』 電子版, 2022.4.10.



통해 끊임없이 조선인을 구별 짓고, 배척하고자 했다. 해방 이후, 이러한 내부의 ‘적’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재일조선인을 향한 혐오와 배제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불안과 공포 또한 과거의 식민지를 여전히 ‘괴물 같은 이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해방 이후 본격적인 문화개방 이전까지의 공백기, 즉 한국 측의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금지와, 일본 측의 한국에 대한 무관심을 가장한 외면은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방식의 관계 맺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의 정치적 지형도는, 탈식민화나, 사과와 용서를 통한 과거사 청산을 불가능하게 만든 상태에서, 한일 양국이 국제 정치 내에서 정치적인 동맹국이 되도록 강제했다. 따라서 이러한 두 나라 사이의 어찌면 지나치게 밀접한 정치적 거리를, 문화적인 교류의 통제로 인해 두 나라 사이에 끼어들게 된 시간적 여백이, 적당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정도로까지 벌려놓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게 된 데에는, 그 동안의 무관심과 외면이 필수적이었으며, 그리하여 1990년대 이후 대중문화를 통하여 재발견된 한국은 재일조선인이나 북한, 또는 식민지 조선과 관련이 없는 /적은 별개의 엔티티(entity)로 인식되었다. 한류가 가능했던 것 자체가, 이 ‘한국’이라는 국가가 ‘해외’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적당한 거리를 사이에 둔 ‘타국’으로서 정립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류를 통해 한국은 일본과 분명한 문화적 ‘차이’를 지닌 ‘타국’임을 반복적으로 재확인시켜주었다. 그리하여 한류가 일본 대중에게 발휘한 가장 큰 효과는 한국을 심리적으로 ‘괴물 같은’ 내부의 적이 아닌, ‘해외’의 ‘타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겠다. 한국문학 또한 대중문화 영역의 한류 붐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완전한 ‘해외 문학’으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게 된다.

한류가 문학 출판에 미친 영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본격적인 한류의 시작을 〈겨울연가〉의 인기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던 2004년부터인 것으로 추산할 경우, 지난 18년간 한류는 무엇보다 한국어 학습자의 수적 증가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 문화의 향유는 언어 습득에의

가장 큰 동력이 되어 주었으며,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치 외교적인 관계가 악화되는 현실 속에서도 문화 영역에서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어 학습자의 전반적인 수적 증가로 이어져, 지금은 아마존 등의 유통망을 통해 일본어로 번역되지 않은 한국어 서적이 일본에서 출간,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그 저변이 확대되었다. 한류 향유층과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는 일본 내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공급자 및 수요자 모두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류 이후 한국 문학 분야의 전문 번역가는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류의 인기를 출판물 홍보에 이용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한 출판사들 또한 하나, 둘,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2010년대 이후 한국문학의 출판 상황은 또 다시 큰 변혁을 맞이하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한류가 그 토대를 마련해 준 출판사, 번역자 그리고 독자층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의 ‘한국문학 붐’에 이르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4. 『82년생 김지영』, 일본의 독자를 만나다

2000년대 이후 한류 붐에 기대어 인기가 보증된 영화나 드라마의 원작 소설이 주로 번역, 소개되는 흐름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또 한 차례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한국의 문학작품만을 전문적으로 펴내는 출판사 쿠온(CUON)의 등장 이 이러한 변화를 선도했다고 할 수 있다. 쿠온은 2011년 5월,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출간한 것을 시작으로, ‘새로운 한국문학(新しい韓国の文学)’ 시리즈를 통해 다양한 동시대의 한국문학을 일본에 소개하고 있다.<sup>68)</sup> 90년대부터 이미 장정일이나 박완서, 황석영, 최인호, 공지영, 신경숙 등 한국 인기작가의 당대문학이 일본에 소개되기 시작했지만, 이들 작가

68) 대표 김승복은 ‘새로운 한국문학’ 기획에 대하여 (1) 한국 문학계에서 일정한 평가를 받은 작가가 (2) 2000년대 이후에 발표한 작품 중에서 (3) 스스로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라는 세 가지 선정 기준을 든다. 金承福, 『本と책(2)-『第一子』誕生』, 『世界』 950, 2021.11, 264~266쪽.

들은 모두 한국에서 확고한 지위를 지닌 대형 작가들이라는 점에서 쿠온이 ‘새롭게’ 번역, 소개하기 시작한 작가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2022년 11월 기준, 총 23권이 출간된 ‘새로운 한국문학’ 시리즈를 통해 소개된 작가들은 한강, 김중혁, 김애란, 은희경, 김연수, 정세랑, 박민규, 편혜영, 김영하, 최은영, 신경숙 등으로, 작가들의 평균 연령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69)</sup> 대부분 아직 신인이거나 젊은 작가 층에 속하는 이들의 작품들이 번역되어 일본 독자들과 만나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그 가운데 김영하와 신경숙을 제외한 나머지 작가들은 쿠온에서 첫 일역 작품집을 펴낸 작가들로, 앞서 일본에 소개된 적이 없는 작가들이었다. 일본의 출판 관행상, 이미 소개가 되어 일정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작가들이 재차 출간의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에 비하면, 이는 대단한 파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쿠온은 한국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일본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문턱을 상당히 낮춰준 것이자, 일본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다양한 한국의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 역시, 한류 수용층이 주로 젊은 계층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한국문학을 위한 새로운 독자층을 개척하는 데 있어 주요 타깃이 된 것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보다 호의적이거나 친숙하며, 문화와 정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젊은 층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쿠온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채식주의자』는 그러나, 판매 실적이 부족한 탓에, 신간 서적들이 보통 대형 중개상을 거쳐 유통되는 일본의 출판시장에서는 판로를 개척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쿠온은 소규모 출판사의 서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중개상을 통해 『채식주의자』를 판매하는 한편, 일본의 유명 작가를 섭외하여 한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한다. 잡지 『순가락(スッカラク)』에 한강과 일본의 소설가 나가카미 노리(中上紀)의 왕복서간 연재를 기획하였고, 제20회 도쿄 국제도서전(2013)에서는 한강과 오정희, 나가카미 노리가 ‘여성의 자의식과 문학’에 대해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

69) ‘새로운 한국문학’에는 신경림, 허형만, 김혜순 등 원로 시인들의 시집과 기존에 소개된 바 있는 신경숙의 작품집 또한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다.<sup>70)</sup> 이러한 홍보 덕에 일간지에 서평이 실렸고,<sup>71)</sup> 판매 두 달 만에 15,000부가 매진되어 2쇄를 찍는 기쁨을 토하게 된다.<sup>72)</sup>

한편 2011년에는 쿠온 대표 김승복을 중심으로 K-BOOK 진흥회가 결성,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독후감 대회 운영과 일본 출판사를 위한 한국어 서적 출판에 관한 책자 발행, 각종 지원기구 및 지원금 소개, 저작권 중개 업무 등 출판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게 된다.<sup>73)</sup> 주목할 만한 점은 2017년 당시 K-BOOK 진흥회가 펴낸 책자 『일본어로 읽고 싶은 한국 책(日本語で読みたい韓国の本)』을 통해 소개된 서적 가운데 50권 정도가 실제 출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sup>74)</sup> 김승복의 이러한 노력들은 현지의 독자 및 출판사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2016년에는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한국문학으로서는 최초로 맨부커 국제상(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을 수상하게 되면서, 쿠온의 선제적 번역과 선정지명이 주목을 받게 되는 한편, 이후 한국 문학의 번역과 소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된다.

한국문학이 다른 해외문학에 비해 큰 인기를 끌지 못해 온 일본에서, 판매 부수만으로 처음 주목을 받게 된 작품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였다. 2011년,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뉴욕타임스>가 뽑은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리고, 2012년에는 맨아시아 문학상(Man Asian Literary Prize)까지 수상하게 되는데, 2011년 9월, 안우식의 번역으로 문고본으로 출간된 이 작품은 해외에서의 주목에 힘입어 일본에서도 상당한 판매량을 기록하게 된다.

여기에 이어 2015년 4월에는 박민규의 『카스테라』가 제1회 일본번역대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한일 양국의 출판계 인사들을 놀라게 한다. 2014년 4월, 제일조선인 3세인 문홍수(文弘樹)가 경영하는 일인 출판사 도서출판 크레인

70) 金承福, 앞의 글.

71) 河合香織, 『『菜食主義者』ここに慰めはない』, 『読売新聞』, 2011.7.17; 松永美穂, 『『菜食主義者』肉を食わず、手の届かない世界へ』, 『朝日新聞』, 2011.7.24.

72) 『한강 소설 ‘채식주의자’ 도서 2쇄 돌입』, 『동아일보』, 2011.8.15.

73) 館野哲, 『『K-BOOK振興会』のやっていること。』, 『出版ニュース』 2451, 出版ニュース社, 2017.7.上旬.

74) 館野哲, 위의 글, 28쪽.

(クレイン)에서 번역, 출간된 이 소설은 ‘한국문학 신발견(韓國文學新發見)’이라는 광고문구를 달아 초판 2,000부를 인쇄하였지만,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사이에 정치적 갈등을 촉발시키면서 600부 판매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는 데 그친다. 그러나 일본의 해외문학 독자층 사이에서 화제가 되면서 1년 후, 제1회 일본번역대상 수상작으로 선정, 일본에서의 한국문학 번역사에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 상이 특히 의미가 깊은 이유는, 일본번역대상의 후보작 선정 과정의 특이성에 있다. 훌륭한 번역자를 양성하고 격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상은, 서구문학 번역자로 구성된 선고위원(選考委員)과 일반 독자들의 추천으로 후보작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1차 심사가 독자 추천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00부라는 초라한 판매부수밖에 기록하지 못한 『카스테라』가 후보작에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75)</sup> 그리고 이는 한국문학이 일본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카스테라』가 이렇듯 일본번역대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된 이면에는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다.<sup>76)</sup> 2010년 즈음부터 당대 한국의 젊은 층과 그들의 생활상에 관심을 갖고 있던 크레인의 대표 문흥수는 박유하의 소개로 『카스테라』를 접하게 된 후, 강렬한 인상을 받아 이 책의 출간을 결심하게 된다. 번역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한국문학번역원에 이미 완성된 일역 원고(현재훈 역)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만, 이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다. 문흥수는 결국 편집자인 사이토 마리코(齋藤真理子)를 섭외하여 번역문을 다듬고, 현재훈과의 공동 번역으로 『카스테라』를 출간한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선택 덕분에 제1회 일본번역대상 수상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번역 문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문의 충실한

75) 米光一成, 『日本翻訳大賞設立記』, 『Scripta』 9(4), 紀伊屋書店出版部, 2015.6, 18~19쪽. 『카스테라』는 체코 작가 오우르제드니크 파트리크(Ouředník, Patrik)의 『유포피어나(Europeana)』와 함께 공동으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76) 『카스테라』의 출간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였다. 文弘樹, 『こんな本をつくってきた』, 編集グループSURE, 2021, 159~171쪽.

번역을 넘어, 현지의 독자들에게 문학적인 완성도를 지닌 작품으로서 읽힐 수 있어야함을 재확인시켜준 동시에, 사이토 마리코라는 걸출한 번역자를 발굴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카스테라』의 공동 번역자 현재훈은 「역자후기」에 자본주의 사회의 윤리로 인해 상층받고, 그 시스템에서 소외된 등장인물들에 일본 독자들 또한 ‘공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고 있다.<sup>77)</sup> 사이토 마리코는 실제로 일본 독자들의 『카스테라』 독후감을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거나 현대 사회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작품 속 인물들의 모습과 자신을 겹쳐 읽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sup>78)</sup> 이렇듯 일본 독자들의 ‘공감’에 대해 번역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일본에서의 한국문학 번역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해방 직후 70년대까지는 한국인 번역자들과 재일조선인 번역자들이 체제경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자신들이 일본에 알리고 싶은 작품들 위주로 한국문학을 번역, 소개했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 이후, 일본 내에서 한국 문학 전공자들과 자주 강좌 중심으로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면서 한국문학이 하나의 ‘해외문학’으로서 정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고, 많은 성과 또한 내게 되지만, 이들은 연구자라는 특수성과, 소수에 한정된 독자층이라는 특징이 있었다.<sup>79)</sup> 한류 붐은 이러한 척박한 풍토에 단비가 되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새롭게 마련된 토양에 새로운 전문 번역가 집단과 한국문학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일본의 중견 출판사들, 그리고 새로운 독자층이 등장하게 되면서 일본에서의 한국문학 번역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한강의 『채식주의자』(2011)와 박민규의 『카스테라』(2014) 등이 이루어 낸 성과들이 가져오기 시작한 변화의 조짐들은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

77) 히ョン 겐퉁, 「訳者あとがき」, 박크 민그요, 히ョン 겐퉁·斎藤真理子訳, 『카스테라』, 크레인, 2014, 331쪽.

78) 박크 민그요+斎藤真理子, 「対談 韓国の‘異端児’が生まれるまで」, 『すばる』 40(5), 集英社, 2018.5, 267~268쪽.

79) 와타나베 나오키, 앞의 글(2022), 9쪽.

이 2018년 12월, 사이토 마리코의 번역으로 일본의 독자들과 만나고, 한국에서의 성공에 이어 일본에서도 대형 베스트셀러가 된 이후, 확고한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82년생 김지영』은 한국문학으로서는 최대의 판매부수를 기록, 일본 내에서 크나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2020년 기준, 20만 부가 넘게 판매되어 어느새 베스트셀러를 넘어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sup>80)</sup> 저자와의 대화 등 『82년생 김지영』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이러한 인기의 여파가 다른 한국 문학 작품들로까지 이어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면서 혹자는 『82년생 김지영』이야말로 한국문학이 일본의 독자들과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마중물’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sup>81)</sup>

뒤이어 2020년 손원평의 『아몬드』가 제17회 서점대상(本屋大賞) 「번역소설부문(翻訳小説部門)」 1위를 수상한 데 이어<sup>82)</sup> 김수현의 에세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가 2022년 8월 기준, 54만부의 판매량을 기록한 것<sup>83)</sup> 또한 이러한 흐름의 일단을 보여준다. 여러 출판사들에서 앞다투어 한국문학 시리즈를 내놓고 있고, 이들 출판사들이 모여 한국문학 북페어를 개최하는 등, 한국문학이 오랜 기간 별다른 관심을 받아오지 못했던 일본의 출판 시장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일본 출판사 아키쇼보는 『82년생 김지영』보다 3개월 앞선 2018년 9월, “이웃나라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이며 그 첫 번째 소설로 정세라의 『피프티 퍼플』을 소개한 바 있는데, 이 책이 상당한 인기를 끌자 2020년 3월부터는 아예 “정세라의 책”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보건교사 안은영』, 『옥상에서 만나요』, 『목소리를 드릴게요』, 『시선으로부터』 등의 작품들을 연이어 발간하고 있다. 또한 『옥상에서 만나요』부터는 한국에서 출간된 지 각각 19개월, 17

80) 정재기획팀, 「해외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한국문학은?」 한국문학번역원 보도자료, 2022.1.18. (<https://www.ltikorea.or.kr/kr/board/press/boardView.do?jsessionid=ACB66F634163BD4CFE0A6008EC88FB557bbsIdx=14297&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81) 斎藤真理子, 「本という呼び水」, 『文学界』 73-3, 2019.3.

82) 남상현, 「손원평 아몬드(2017)의 일본 수용 고찰」, 『일본학보』 131, 한국일본학회, 2022, 160쪽.

83) 와니북스 홈페이지 참조. [https://www.wani.co.jp/special/wani\\_watashi/](https://www.wani.co.jp/special/wani_watashi/)

개월, 18개월 만에 일본에서도 번역본이 나오는 등, 번역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만을 거쳐 거의 동시적으로 출간되고 있다.

왜 지금 일본에서 한국문학 붐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들은 대체로 일본 사회 내 한류의 영향과 『82년생 김지영』이 던진 페미니즘적 의제가 일본 독자들에게 불러일으킨 의외의 반향에 주목한다.<sup>84)</sup> 그러나 『82년생 김지영』이 성공을 거둔 것은 무엇보다, 번역자, 출판사, 독자의 삼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진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82년생 김지영』의 번역자인 사이토 마리코는 그 자신, 한일 양국에서 해당 언어로 시집을 발간한 바 있는 시인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앞서 검토한 재일교포 번역가 안우식이나, 기본적으로 한국문학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일본인 연구자들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번역가라고 할 수 있다.<sup>85)</sup> 앞서 언급하였듯이, 박민규의 『카스테라』 번역으로 2014년 제1회 번역문학상을 수상, 한국문학의 가능성을 일본 출판계에 드러내며 한국 문학 번역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사이토 마리코는 한국 현대문학 입문서(『한국문학의 중심에 있는 것』, 2022), 한국 작가와의 대담(『박민규 x 사이코 마리코 대담』, 『스바루』 2018.5, 『황정은 x 사이토 마리코 대담』, 『문예』 2018.7)이나 인터뷰, 라디오 출연, 북토크 진행 등 활발한 활동을 중흥무진 이어가며 현재 일본에서의 한국문학 붐을 견인하고 있다. 사이토 마리코는 지금까지 공역 포함, 28편의 단행본을 번역하였는데, 그가 번역한 한국 문학 작품들의 목록은 대략 아래와 같다.

84) 2019년 9월 21자 아사히 신문은 최근 일본에서 한국 문학 작품들이 거두고 있는 성공들을 열거하며, 이를 한류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영화, 드라마, 케이팝 등에 이어, 이제 문학 분야에까지 한류의 파도가 밀어닥쳐 왔다는 것이다. 林るみ, 『活躍めざましい女性作家たち』, 『朝日新聞』, 2019.9.21.

85) 사이토는 일본어 시집 『올림 날개칩 눈보라(ひびき はばたき ふぶき)』(1990)와 한국어 시집 『입국』(1993)을 펴낸 시인이다. 『입국』은 출간 당시 일본 시인의 한국어 창작이라는 점에서 신문에 크게 보도된 바 있다. 고미석, 『일본 시인 ‘한국어 시집’ 펴낸다』, 『동아일보』, 1993.9.23., 박해현, 『한글 시집 『입국』 출간 日시인 사이토 씨』, 『조선일보』, 1993.9.23.



〈표3〉

작가명	작품명	출판사	년도	일어 번역본 제목	출판사	년도
1 박민규	카스테라	문학동네	2005	カステラ	クレイン	2014
2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문학과지성사	1978	こびとが打ち上げた小さなボール	河出書房新社	2016
3 박민규	핑퐁	창비	2006	ピンポン	白水社	2017
4 한강	희랍어 시간	문학동네	2011	ギリシャ語の時間	晶文社	2017
5 박민규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한겨레출판	2003	三美スーパースターズ最後のファンクラブ	晶文社	2017
6 황정은	아무도 아닌	문학동네	2016	誰もでない	晶文社	2018
7 황정은	야만적인 엘리스씨	문학동네	2013	野蛮なアリスさん	河出書房新社	2018
8 천명관	고래	문학동네	2004	鯨	晶文社	2018
9 전수찬	수치	창비	2014	羞恥	みすず書房	2018
10 정세랑	피프티 퍼플	창비	2016	フィフティ・ピープル	亜紀書房	2018
11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민음사	2016	82年生まれ、キム・ジヨン	筑摩書房	2018
12 한강	흰	난다	2016	すべての、白いものたちの	河出書房新社	2018
13 조남주, 최은영, 김이설, 최정화, 손보미, 구병모, 김성중	현남 오빠에게 - 페미니즘 소설	다산책방	2017	ヒョンナムオッパへ：韓国フェミニズム小説集	白水社	2019
14 한강	일본 오리지널 편집			回復する人間	白水社	2019
15 박민규	더블 side A, B	창비	2010	ダブル サイドA, B	筑摩書房	2019
16 이기호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	문학동네	2018	誰にでも親切な教会のお兄さんカン・ミノ	亜紀書房	2020
17 정세랑	보건교사 안은영	민음사	2015	保健室のアン・ウニョン先生	亜紀書房	2020
18 정이현	상냥한 폭력의 시대	문학과지성사	2016	優しい暴力の時代	河出書房新社	2020
19 황정은	디디의 우산	창비	2019	ディディの傘	亜紀書房	2020
20 박솔피	일본 오리지널 편집			もう死んでいる十二人の女たちと	白水社	2021

21	정세랑	목소리를 드릴게요	아작	2020	声をあげます	亜紀書房	2021
22	조남주	사하맨션	민음사	2019	サハマンション	筑摩書房	2021
23	권여선	아직 멀었다는 말	문학동네	2020	まだまだという言葉	河出書房新社	2021
24	정세랑	시선으로부터,	문학동네	2020	シソンから、	亜紀書房	2021
25	김초엽, 듀나, 정소연, 김이환, 배명훈, 이종산	팬데믹 : 여섯 개의 세계	문학과지성사	2020	最後のライオン - 韓国 パンデミックSF小説集	河出書房新社	2021
26	황정은	연년세세	창비	2020	年年歳歳	河出書房新社	2022
27	한강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문학과지성사	2013	引き出しに夕方をしまっ ておいた	クオン	2022
28	배명훈	타워	오멜라스(웅진)	2009	タワー	河出書房新社	2022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사이토 마리코의 번역을 매개로 일본의 중견 출판사들이 한국문학에 뛰어 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이토 마리코의 번역 혹은 공역으로 한국 문학 관련 서적을 출간한 출판사들은 총 8곳으로, 이 중 원래부터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크레인(1편)과 쿠온(1편) 외 6곳은 모두 일본 출판사이다.

그 중 카와데쇼보신사(河出書房新社, 1886 설립)는 일본의 주요 문예지 중 하나인 『文藝』를 출간하는 출판사로, 1973년 안우식의 번역으로 『김사량 전집』을 출간한 바 있으며, 1978년 9월호 『文藝』에서는 한국근현대문학 연구자 조 쇼키치(長璋吉)의 번역으로 조세희의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를 번역, 소개한 바 있다. 이 작품은 총 12편으로 이루어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연작 중 이홉 번째 작품으로, 『문예중앙』 1977년 가을호에 처음 게재된 작품이다. 즉 한국의 동시대 문학을 일 년 만에 매우 빠르게 번역, 소개한, 당시로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한국근현대문학을 전공한 일본인 연구자가 일본의 주요 문예지에 한국문학을 소개한 거의 최초의 경우이기도 했다.<sup>86)</sup>

86) 조 쇼키치는 1965년 도쿄외국어대학 중국어과를 졸업, 1978년부터 도쿄외국어대학 조선어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 1세대 일본인 한국문학 연구자로, 오무라와 가지이 등과 『朝鮮文学 - 紹介と研

카와데쇼보신사는 한류가 유의미한 문화콘텐츠로 자리잡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영화 원작소설이나 드라마 원작 소설 등으로도 눈을 돌려, 앞서 검토했듯이 2005년에는 귀여니의 『늑대의 유혹』을, 2011년에는 이정명의 『뿌리 깊은 나무 1, 2』를 번역, 출간했던 출판사이기도 하다.<sup>87)</sup> 이처럼 한국문학과 문화에 대해 일정 부분 관심을 가져왔던 이 출판사는 2016년 사이트 마리코의 번역으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출간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문학 번역에 뛰어든다. 이는 2014년, 사이트 마리코가 박민규의 『카스테라』로 제1회 번역문학상을 수상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sup>88)</sup>

사이트 마리코의 활약은 그 이후 더욱 본격화되는데, 앞서 언급한 사이트 마리코의 번역본이 나온 8개의 출판사 중 크레인, 쿠온 등 제일 교포나 한국인이 운영하는 출판사와, 앞서 서술한 카와데쇼보신사를 제외한 나머지 5곳인 하쿠수이사(白水社, 1915년 설립), 쇼분샤(晶文社, 1960년 설립), 미스즈쇼보(みすず書房, 1945년 설립), 아키쇼보(亜紀書房, 1967년 설립), 치쿠마쇼보(筑摩書房, 1940년 설립)는 모두 일본의 중견 출판사이며, 모두 사이트 마리코를 번역자로 하여 한국문학 번역서를 본격적으로 출간하기 시작한다. 이들 출판사들은 모두 한 두 편의 한국문학 번역서를 출간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국문학 시리즈를 기획, 출간하였는데,<sup>89)</sup> 이들 출판사들이 이러한 장기적인 기획을 가지고 한국 문학 번역 출간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사이트 마리코라는 번역자의 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90)</sup>

究』에 참여, 많은 작품들을 번역 소개(박시정, 『はばたきの音』, 『朝鮮文学』 4호, 1971; 이태준, 『가마귀(鴉)』, 『朝鮮文学』 7호, 1972; 이상, 『봉별기(逢別記)』, 『朝鮮文学』 7호, 1972 등) 하였다. 1978년 『文藝』에 조세희의 작품을 번역 소개하기 이전에도, 독자층이 협소한 『朝鮮文学』의 일본의 문예지에 한국문학을 소개하고자 노력, 1974년 4월호 『浪漫』에 선우휘의 『단독강화(單獨講和)』를, 1976년 12월호 『文芸展望』에 이청준의 『뽕소니 사고(繯き逃げ事故)』를 실은 바 있다.

87) 이정명의 『뿌리 깊은 나무』(2006) 또한 드라마화(2011)되면서 더 유명해진 작품으로, 동명 드라마는 SBS에서 2011년 10월 5일부터 2011년 12월 22일까지 방송되었다. 카와데쇼보신사에서는 제목을 “경복궁의 비밀 코드-한글에 숨겨진 세종대왕의 맹세”로 바꾸어 2011년 9월 22일, 한국에서 드라마가 방송되기 직전 출간하였다. 일본에서는 BS아사히 채널에서 2014년 12월 11일부터 2015년 1월 20일까지, 월~금에 1편씩 연속 방송되기도 하였다.

88) 카와데쇼보신사에서 출간된 사이트 마리코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카스테라』 출간한 이후 일본 출판사에서 낸 첫 소설집이었다.

89) 하쿠수이사의 “엑스리브리스(ex-libris)”, 쇼분샤의 “한국문학의 선물(韓国文学のオクリモノ)”; 아키쇼보의 “이웃나라의 이야기(となりの国のものがたり)”와 “정세랑의 책(ジョン・セランの本)” 등.

실제로 카와데쇼보신사의 경우 총 12권 정도의 한국소설 작품을 출간하였는데, 그 중 8권이 사이트 마리코의 번역이며, 하쿠수이사는 총 6권 중 4권이, 쇼분샤는 총 7권 중 4권, 아키쇼보는 총 13권 중 6권, 치쿠마쇼보는 총 4권 중 3권이 사이트 마리코의 번역으로 출간되었을 정도로, 번역가로서의 사이트 마리코에 대한 출판사들의 신뢰도는 매우 높다고 하겠다. 군소 출판사가 단발적으로 한국 문학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중견 출판사가 한국 문학의 가능성, 또는 상업성을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리즈를 기획했을 때, 일본 대중에게 다가갈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이트 마리코의 가장 큰 기여는 한국 문학 번역서를 한 번도 출간한 적 없던 일본의 문학 전문 중견 출판사를 네 곳이나 개척, 한국문학 붐에 유입시켰다는 데 있다.

『82년생 김지영』의 성공 요인에 대해 말할 때, 이 소설이 발굴, 또는 발견해낸 독자층에 대해서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소설이 일본에서 그토록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 거의 20여 년 동안 이어진 한류 덕분에 한국 문화에 친밀감을 느끼는 젊은 독자층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한국 문학으로 쉽게 이끌릴 수 있는 독자층은 단연 젊은 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류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한국 문화 향유층의 저변 확대가 주로 일본 여성을 주요 타깃으로 하여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겨울 연가>의 주 향유층이 40, 50대 여성으로 분석되었던 것과 같이, 한류 현상은 대체로 ‘남성/ 정치 중심’의 지형에서 탈피, ‘여성/ 문화 중심’으로 옮겨가며 그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사이트 마리코가 번역한 작가들의 명단에서 역시 여성 작가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강, 황정은, 정세랑, 조남주, 정이현, 박솔피, 권여선 등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합치면 총 17권의 작품이 번역

90) 하쿠수이사의 엑스리브리스 시리즈는 해외문학을 대상으로 하는 시리즈로 2009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주로 서양문학을 꾸준히 소개하여 왔다. 그러나 박민규의 『평풍』을 사이트 마리코의 번역으로 출간하면서 한국문학 작품이 최초로 이 시리즈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 이후 한강의 『희복하는 인간』, 박솔피의 『이미 죽은 열두명의 여자들과』 등이 일본 출판사의 독자적인 작품 선정과 편집 과정을 거쳐 이 시리즈의 일환으로 출간된다.

되었으며, 박민규, 조세희, 천명관, 이기호 등 남성 작가들의 작품을 합치면 총 7권으로,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 두 배 이상 많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번역되고 있는 한국 문학 작품들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 문학의 주요 독자층이 여성이라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82년생 김지영』의 성공은 번역자와 출판사, 그리고 독자의 합이 맞아떨어지고, 한국문학에 척박한 일본의 환경 속에서도 오랜 기간 노력을 경주해 온 모든 번역가, 연구자, 출판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된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저변에서 작용해 온 한류의 영향 또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류가 한국문학 붐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오늘날의 현상에만 집중하여 접근하다 보면, 일본 내에서 한류의 흐름이 생기기까지 이어져 온 교류의 토대와 한류의 오랜 전개 과정 등에 대한 총체적인 시야를 놓치게 되기 쉽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방 이후 교류의 토대가 놓아지고, 그 이후 한류가 본격적으로 개화하기까지의 시기를 주요 분기점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해 보았다. 『채식주의자』, 『카스테라』, 그리고 『82년생 김지영』은 한국문학의 ‘해외문학’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결과적으로 2010년대 이후 일본에서의 한국문학 출판의 지형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의 한국 문학 번역은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82년생 김지영』의 성공으로 분출된 2010년대의 ‘한국문학 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검토하였지만, 정작 『82년생 김지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 이 작품은 1970년대의 김지하 붐과 비견될 만한, 일본 내의 자발적인 호응을 획득해 낸 한국문학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별도의 지면을 요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1970년대의 김지하 붐과, 2010년대의 『82년생 김지영』 붐, 그 차이와 반복에 대해서는 후속 논문을 통해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내장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한국문학 번역의 미래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시야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1. 신문기사

- 고미석, 『일본 시인 ‘한국어 시집’ 펴낸다』, 『동아일보』, 1993.9.23.  
 김기영, 『영화 ‘늑대의 유혹’ 강동원, 일본에서 인기』, 『뉴스타운』, 2005.4.30.  
 김도형, 『‘겨울연가’ 경제적 효과』, 『한겨레』, 2004.5.20.  
 김동호, 『김동호의 세계 영화제 기행 <26> 도쿄국제영화제』, 『국제신문』, 2010.7.7.  
 김형호, 『소설 ‘가시고기’ 안방극장서 본다-MBC 특집극 4부작 내달 방영』, 『한경라이프』, 2000.11.10.  
 박선희, 『영미권 넘어日서도 흐름 탄 K문학…번역가 키우면 지구촌 대세』, 『동아일보』, 2020.10.30.  
 박해현, 『한글시집 『입국』 출간 日시인 사이토 씨』, 『조선일보』, 1993.9.23.  
 이지은, 『한강 소설 ‘채식주의자’ 日서 2쇄 돌입』, 『동아일보』, 2011.8.15.  
 정책기획팀, 『해외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한국문학은?』, 한국문학번역원 보도자료, 2022.1.18.

- 河合香織, 『『菜食主義者』ここに慰めはない』, 『読売新聞』, 2011.7.17.  
 日下部元美, 『『出る本が全部ヒット』日本でなぜ韓国エッセーがブームに?』, 『毎日新聞』電子版, 2022.4.10.  
 中上健次, 『伊興吉「長雨」の衝撃』, 『毎日新聞』, 1979.5.8.  
 林るみ, 『活躍めざましい女性作家たち』, 『朝日新聞』, 2019.9.21.  
 松永美穂, 『『菜食主義者』肉を食わず、手の届かない世界へ』, 『朝日新聞』, 2011.7.24.  
 『身近な異文化への目』, 『朝日新聞』, 1991.11.3.

### 2. 국내논저

- 강상중, 고정애 역, 『재일 강상중』, 삶과꿈, 2004.  
 김성민, 『일본을 금하다-금제와 욕망의 한국 대중문화사 1945-2004』, 글항아리, 2014.  
 남상현, 『손원평 아문드(2017)의 일본 수용 고찰』, 『일본학보』 131, 한국일본학회, 2022.  
 와타나베 나오키, 『K文学の日本における受容について-研究者の立場からみた韓国文学とフェミニズム』, 『일본학보』 131, 한국일본학회, 2022.  
 윤석임, 『일본어로 번역, 소개된 한국문학의 번역현황조사 및 분석』, 『일본학보』 57, 한국일본학회, 2003.12.  
 \_\_\_\_\_, 『일본의 한국문학 수용 현황에 대한 연구』, 『일본문화연구』 12, 동아시아일본학회, 2004.10.  
 \_\_\_\_\_, 『일본의 한국문학 수용 현황과 과제 및 대응방안』, 『일본학보』 62, 한국일본학회, 2005.2.  
 \_\_\_\_\_, 『일본의 한국대중문화 수용 현황 분석-일본의 신문 및 잡지기사 통계와 분석을 근거로 하여』, 『일본학연구』 20, 단국대 일본연구소, 2007.1.  
 \_\_\_\_\_, 『한국대중문화관점에서 본 일본에서의 한국문학의 수용에 대한 전망』, 『일본언어문화』 12,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08.4.  
 이한정, 『일본의 한국문학 번역서지 목록(1945-2016)』, 『한국학연구』 4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2.  
 \_\_\_\_\_, 『1945년 이후 일본의 한국문학 번역 현황 개관』, 『한국학연구』 4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8.  
 \_\_\_\_\_, 『‘자이니치’ 강상중의 자서전과 일본 사회』, 『일본학』 50,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2020.5.  
 \_\_\_\_\_, 『해방 이전 한국문학의 일본어 번역에 관한 연구-‘번역서지목록’ 작성을 중심으로』, 『비교일본학』 48,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20.6.

- 장문석, 『현재탄을 건넌 ‘타는 목마름’ - 1970년대 일본과 김지하라는 텍스트』, 『상허학보』 58, 상허학회, 2020.
- \_\_\_\_\_, 『연대의 이념에서 주체성의 세계로 - 냉전기 일본의 조선문학 연구와 조선어』, 『일본비평』 27,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22.
- 채경훈, 『1980-90년대 재일조선인 영화 제작·배급 회사의 한일 영화 교류사적 의의와 역할』, 『아시아영화 연구』 15-1,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2022.
- 최태원, 『전후 일본에서의 조선근대문학연구의 성립과 전개 - <조선문학의 회>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 히라타 유키에, 『한국을 소비하는 일본 - 한류, 여성, 드라마』, 책세상, 2005.

### 3. 국외논저

- 安宇植, 『現代韓國文學と中上健次』, 『國文學 - 解釈と教材の研究』 36(14), 1991.12.
- \_\_\_\_\_, 『日・韓文學シンポジウム開催に向けて』, 『季刊aala』 87, 1992.9.
- \_\_\_\_\_, 『朝鮮にも文學があるんですか?』, 『民主文學』 501, 2007.
- \_\_\_\_\_, 『大地に根ざし、人間の運命描く』, 『東洋經濟新報』, 2008.5.16.
- 大村益夫, 『朝鮮文學關係日本語文獻目録』の編纂, 『書誌索引展望』 8-3, 日本索引家協會, 1984.8.
- \_\_\_\_\_, 『日本における朝鮮現代文學の研究・翻訳小史』, 『青丘學術論集』 2,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1992.
- 大村益夫・布袋敏博編, 『朝鮮文學關係日本語文獻目録 - 1882.4-1945.8』, 大村研究室, 1997.
- 梶井陟, 『日本における朝鮮近・現代小説(戯曲を含む)の作家別翻訳作品年譜』, 『富山大学人文学部紀要』 8, 富山大学, 1983.
- 加藤兼三, 『沈薫著『常緑樹』の翻訳を終えて』, 『季刊三千里』 29, 三千里社, 1982.2.
- 川村湊, 『私と日韓文學交流』, 『社會文學』 52, 2020.
- 姜在彦, 『在日朝鮮人』であることの意味』, 『季刊三千里』 50, 1987, 47.
- 金承福, 『本と책(2) - 『第一子』誕生』, 『世界』 950, 2021.11.
- 齋藤真理子, 『本という呼び水』, 『文學界』 73-3, 2019.3.
- \_\_\_\_\_, 『韓國文學の中心にあるもの』, イースト・プレス, 2022.
- 三枝壽勝, 『李泰俊作品論』, 『史淵』 117, 九州大学文学部, 1980.
- \_\_\_\_\_, 『解放後の李泰俊』, 『史淵』 118, 九州大学文学部, 1981.
- \_\_\_\_\_, 『解説』, 大村益夫・長璋吉・三枝壽勝編訳, 『朝鮮短篇小説選』 上, 岩波書店, 1984.
- \_\_\_\_\_, 『『韓國文學を味わう』報告書』, 國際交流基金アジアセンター, 1997.
- \_\_\_\_\_, 『朝鮮文學』, 原卓也・西永良成編, 『翻訳百年』, 大修館書店, 2000.
- \_\_\_\_\_, 『解説』, 三枝壽勝他訳, 『現代韓國短篇選』 下, 岩波書店, 2002.
- 館野哲, 『K-BOOK振興会』のやっていること』, 『出版ニュース』 2451, 出版ニュース社, 2017.7.上旬.
- \_\_\_\_\_, 『日本における韓國文學書の翻訳出版 - 刊行状況と課題をめぐって』, 韓國文學翻譯院からの依頼原稿, 2010.10.
- \_\_\_\_\_, 『自主講座から生まれた韓國語の翻訳家たち』, 『出版ニュース』 2287, 出版ニュース社, 2012.9.上旬.
- 長璋吉, 『李泰俊』, 『朝鮮學報』 92, 朝鮮学会, 1979.

- 長璋吉・三枝壽勝・川村湊, 『座談会 韓国という鏡面』, 『早稲田文学』 129, 1987.2.
- 日本文藝家協會編, 『文藝年鑑』, 新潮社, 2013.
- \_\_\_\_\_, 『文藝年鑑』, 新潮社, 2019.
- 根本理恵, 『訳者あとがき』, 李清俊, 根本理恵訳, 『風の丘を越えて - 西便制』, 早川書房, 1994.
- バク ミンギユ+斎藤真理子, 『対談 韓国の'異端児'が生まれるまで』, 『すばる』 40(5), 集英社, 2018.5.
- 原尻英樹, 『「在日」としてのコリアン』, 講談社, 1988.
- 原卓也・西永良成編, 『翻訳百年』, 大修館書店, 2000.
- ヒョン ジェフン, 『訳者あとがき』, バク ミンギユ, ヒョン ジェフン・斎藤真理子訳, 『カステラ』, クレイ  
ン, 2014.
- 文弘樹, 『こんな本をつくってきた』, 編集グループSURE, 2021.
- 尹正淑, 『朝鮮文化社と尹炳玉』 上・中・下, 『月刊イオ』 233-235, 朝鮮新報社, 2015.11-2016.1.
- 与謝野寛, 『東西南北』, 明治書院, 1896.
- 吉川凧, 『韓国文学』, 日本文藝家協會編, 『文藝年鑑』, 新潮社, 2013.
- \_\_\_\_\_, 『韓国文学』, 日本文藝家協會編, 『文藝年鑑』, 新潮社, 2019.
- 米光一成, 『日本翻訳大賞設立記』, 『Scripta』 9(4), 紀伊國屋書店出版部, 2015.6.
- 渡辺直紀, 『韓国・朝鮮文学研究のための文献解題』, 野間秀樹編, 『韓国語教育論講座』 4, くろしお出版,  
2008.
- Reinhard, Kenneth, "Toward a Political Theology of the *Neighbor*", *The Neighbor - Three Inquiries in  
Political Theolog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레이너드, 케네스, 정혁현 역, 『이웃의  
정치신학을 위하여』, 『이웃 - 정치신학에 관한 세 가지 탐구』, 도서출판b, 2010)
- Ryu, Youngju, *Writers of the Winter Republic: Literature and Resistance in Park Chung Hee's Korea*,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6.
- Žižek, Slavoj, "Neighbors and Other Monsters: A Plea for Ethical Violence", *The Neighbor - Three  
Inquiries in Political Theolog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슬라보예 지젝, 정혁현  
역, 『이웃들과 그 밖의 괴물들: 윤리적 폭력을 위한 변명』, 『이웃 - 정치신학에 관한 세 가지 탐구』,  
도서출판b, 2010)



# 文学出版と韓流

## －日本における韓国現代小説翻訳略史(1)－

柳川陽介\*・李眞亨\*\*

本稿は、解放以降2010年代中盤までを中心として、日本における韓国現代小説の受容様相について考察する。解放直後から現在まで、韓国の文学作品は多様な経路を通じて日本に紹介されてきた。この十年は、日本の出版市場において韓国文学に対する関心が高まるにつれて、様々な作品が同時代的に刊行されるなど、「韓国文学ブーム」ともいえる現象が起きている。こうした現象はかなり異例ともいえるが、それは韓国文学は日本の読者から目を背けられていた外国文学の一つであったためだ。韓日両国のメディアが韓国文学ブームを取り上げ、文学界や出版界においても背景の分析が行われている。韓国側は両国の長年にわたる出版市場の不均等を解消する機会であり、韓国文学の世界化の兆しとみる一方、日本側は個別作品の反響を分析することどまり、なぜ今韓国文学ブームなのかという問いに対し、有意義な考察が行われていない。したがって、こうした問いに答えるため、日本における韓国文学翻訳史を通時的観点から再検討する必要がある。

本稿の第二章では、解放以降日本の韓国文学受容史が、当初は在日朝鮮人や韓国の文学者の主導により行われていたが、次第に日本人の文学研究者と文学者を経て、近年では専門の翻訳者へと移行する過程を考察する。解放後から1960年代までは主に北朝鮮の文学史的評価を前提とした作品が翻訳されていたが、1970年代以降は韓国の文学作品が中心となった。特に重要な翻訳者として活躍した第一世代の日本人研究者、在日朝鮮人の安宇植と作家の中

---

\* 東京外国語大学 非常勤講師

\*\* 亜細亜大学 講義教授

上健次、そして自主講座出身者が残した業績に着目した。第三章では、1990年以降数回にわたり起きた韓流と韓国文学ブームの関連性について考察する。第一次韓流は映画を中心に起きたが、その後はドラマ(第二次)と大衆音楽(第三次)が中心となった。近年の第四次ブームでは、韓国文化に対する人気が大衆芸術を越え、日常生活の領域まで拡大している。こうした韓流を背景として、ようやく韓国文学が日本の『海外文学市場』に定着したこと、これこそが韓流が韓国文学出版に及ぼした最も大きな影響であったことを論じる。

**キーワード** : 日本における韓国文学、翻訳、韓流、韓国文学ブーム、在日朝鮮人、自主講座